

전주대사습놀이 역대 장원자 서울서 공연

전주시 · 전주대사습청 · 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 국립극장 하늘극장서 '전주대사습연' 개최

국악계 최고 등용문으로 평가받는 전주대사습놀이에서 장원을 차지했던 명창들이 서울에서 모여 수준 높은 공연을 펼쳤다.

전주시와 전주대사습청,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는 지난 13일 국립극장 하늘극장(서울 중구 장충동)에서 '2022 전주대사습연'을 개최했다.

공연은 '남도민요, 한량무, 판소리, 가야금병창, 살풀이춤, 시조, 승무, 경기민요, 단막창극' 등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역대 장원자들을 필두로 전국 각지의 전통 예술인들이 함께 무대를 꾸며 큰 호평을 이끌어냈다.

김용호 정음시립국악단 단장의 사회로 열린 공연은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의 판소리 명창부 38회 장원자인 강경아, 41회 장원자 정수인, 44회 장원자 이지숙, 45회 장원자 최영인, 47회 장원자 양혜인을 비롯, 김차경 국립창극단 장악부장, 김미숙 대전시립연정국악단 성악단 지도위원 등으로 이뤄진 여성 국악인들의 남도민요로 포문을 열었다.

공연 관계자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에서 전승되고 있는 전주대사습놀이 장원자의 서울 공연을 통해, 한국을 대표하는 명실상부



전주시와 전주대사습청,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는 지난 13일 국립극장 하늘극장에서 '2022 전주대사습연'을 개최했다.

국악 등용문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며 "여러 출연진과 관계자분들께 성황을 감사하며, 앞으로도 모두가 신명 나는 국악

축제인 전주대사습놀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무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 페스티벌 개최

16개 동호회 회원 연합공연 · 전시 등 진행

(사)무주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가 주관하는 페스티벌이 무주 전통생활문화 체험관 앞 특별무대와 최북미술관 일원에서 열려 무주군민들에게 신선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무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의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문화 커뮤니티를 형성, 스스로 문화를 생산하는 주역이 되는 의미 있는 행사다.

동호회회원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의 자기진작은 물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들에게는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동기부여가 될 전망이다.

전통생활문화 체험관 앞 특별무대에서는 16개 동호회 회원들이 마련한 연합공연이 준비되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오후 3시 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될 2022 생문동 연합공연은 색소폰 공연을 비롯해 한국무용, 반디불고고장구, 셋두리와 가디록 공연, 빛두드림 난타 공연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같은 날 반디불전통공예촌 앞 잔디광장에서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손노리퀵트를 비롯한 목화활림공방, 원예사랑 등 6개 동호회가 준비한 프리마켓을 통해 공예



품 구입과 함께 체험 활동도 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6일부터 오는 27일까지는 최북미술관에 손노리퀵트, 망치정크아트, 달빛바느질, 안성캘리그래피, 서예·사진·영상 등 16개 동호회 회원들이 정성껏 제작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떴다 떴다 비행기-20세기 항공역사 사진전' 열린다

완주그림책미술관, 1910~20년대 프랑스 비행기 사진엽서 비롯 104점 유물 전시

완주책박물관(관장 박대현)에서 항공역사를 확인한다.

16일 완주군은 그림책미술관 특별기획전 '떴다 떴다 비행기-20세기 항공역사 사진전'이 오는 22일부터 내년 5월 28일까지 열린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라이트 형제를 비롯해 20세기 초에 활약한 비행가들과 다양한 글라이더 모델을 소개하는 유물을 통해 항공기술의 발전 과정을 보여준다.

1910~20년대 프랑스 비행기 사진엽서와 1920년대 엔터프라이즈 목재 비행기 모형, 1910~30년대 비행기 관련 고서, 1943년 출간된 생텍쥐페리 '어린왕자' 초판본 이후 1960년대 러시아 '어



린왕자' 원서 등 총 104점의 유물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는 당대의 비행 기록을 생생하게 기록한 사진엽서를 통해 하늘을 개척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인류의 집념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의 가슴 속에 상상의 꿈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현재 그림책미술관에서는 영국 출신 작가 질 만(Mia Mann)의 오리지널 타이핑 원고와 삽화를 토대로 '요정과 마법광이(The Lively Puppets)' 전시가 열리고 있다.

또한, 책박물관에서는 '문자의 바다·파피루스부터 타자기까지' 전시를 통해 고대 레반트 왜기문자, 이집트 파피루스, 세계 각국의 필사본 등 세계 문자의 역사를 한눈에 들여다볼 수 있는 유물을 소개하고 있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무료로 볼 수 있다. 휴관일은 1월 1일과 추석 전일과 당일이다. 20인 이상의 단체관람은 사전예약하며, 전시해설도 사전예약이 필요하다. /완주=이종복 기자

국립민속국악원, 26일 '강강술에 떨어진 달님' 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오는 26일 오후 2시와 4시에 지리산 소극장에서 어린이 무용극 '강강술에 떨어진 달님'을 개최한다.

공연은 8세~10세 어린이들이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국악을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록 마련한 국립민속국악원의 기획공연이다. '강강술에 떨어진 달님'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강강술래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하늘에서 달님이 별님들과 술바꼭질을 하다 강강술래에 떨어져 동물 친구들과 함께 힘을 합쳐

다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이야기가 펼쳐져,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춤과 전통음악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공연 관람은 3개월 이상부터 관람이 가능하며, 예약은 17일 오전 9시부터 전화(063-620-2329)나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을 통해 가능하고 선착순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한국전통문화전당 · 전주역사박물관, '전통놀이 배달했어요'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오는 19일 박물관 야외 하늘마당에서 전주역사박물관(관장 강숙희)과 공동으로 '똑똑! 전통놀이 배달했어요' 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수집·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전주역사박물관과 전국 최초의 놀이 전문공간 '우리놀이터 마루달'을 운영 중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우리놀이진흥팀이 만나 '전통놀이'를 소재로 기획 행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

고 있다. 이날 두 기관은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단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공주머니 던지기 △고누놀이 △제기차기 △사방치기 등 총 4종의 놀이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체험은 11일 사전 접수를 통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19일 오후 1시와 3시30분 총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접수는 전주역사박물관 누리집에서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체험비는 무료다. /장은성 기자

gallery숍 '공감-공유' 무가지 개인전

gallery숍에서 오는 21일부터 12월 3일까지 'Euphoria(유포리아)'라는 전시명으로 무가지 개인전이 열린다.

gallery숍의 '공감-공유'는 전시공간지원을 목적으로 기획했으며, 작가의 신청을 받아 진행된다. 이는 개성 있는 작가의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이려는 gallery숍의 의지다.

작가에 따르면 극한의 자기혐오는 결국 갈망과 무의식에서 오는 허무함으로 종결된다. 최근 몇 개월 동안, 내 자신조차 잃어버릴 정도로 파편함의 연속이었다. 인위적인 자기성찰과 자위적인 위로는 결국 허약한 방어기제를 만들게 되고 끊임없이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찾

게 된다. 나의 방어기제는 어떠한 기형적인 감정의 강박이 만들어낸 반복들의 연속이었으며, 만들어 내어낸 하기에 나 혼자만의 조잡하고 시끄러운 외형에만 집착 했던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해본다.

완전한 무(無)를 동경한다. 그것은 고요한 고독이자 지독한 외로움이며 비로소 보이는 본질이 아닐까 라고 생각해본다. 채워지는 것들은 존재하지만 없다. 끊임없이 갈구 하는 것들은 실존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전시를 통해 작가는 모든 것들의 결과는 결국 내 자신이며 마주 보고 인정하며 비워낼 때 비로소 보여지는 과정의 힘을 믿어보고 고민해본다.

한편 무가지 작가는 전주대학교 미술대학 영상예술학부를 졸업했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